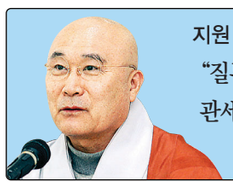

지원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질투 · 분노 내려놓고
관세음보살 부르세요"
8면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법구경〉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이뤄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월 1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34호 2015년 3월 5일 목요일

범종교인 '답게 삽시다' 자성 운동

KCRP, 25일 선포…추진본부 구성하고 전국 확산 계획

KCRP는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교인 답게, 사람답게 살겠다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노덕현 기자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 이하 KCRP)가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교인들의 자성과 참회를 촉구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전개한다.

KCRP는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관련 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종교인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설 것임을 다짐했다. '답게'는 사람답게, 종교인답게, 사회인답게 공공을 위해 이바지하겠다는 정언적 각오다.

7대 종단 평신도들이 주축이 돼 꾸려가는 이번 운동은 4월말까지 추진본부가 구성되면 본격 확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 등장하게 된 데는 최근 사회에 불신과 갈등,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일어난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제각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이어지면서 종교인들부터 각자 자리에서 본분을 지키자는 의미로 기획됐다.

KCRP는 "공동체성이 훼손당하는 현실 바탕에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배려 없는 이기주의, 생명경시 사상, 자기중심주의와 분열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며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헌신해야하는 종교인의 사명을 지키고자 그동안의 책무를 등한시한 점을 참회, 각 종교의 믿음과 가르침을 기반으로 이번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임장수 조계종중앙신도회 부회장은 대표로 읽은 선언문에서 "부처의 대자대비하신 가르침이나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 공자의 인의(仁義), 수운대신사의 시천주, 소태산 대종사의 은혜, 민족종교의 해원상생의 가르침을 되새겨 자신을 성찰하고

사회 갈등… '본분' 못 지킨 탓
7대 종단 평신도 주축 돼
바르게 살자 행동강령 서약
4월 정식 운동본부 발족 계획

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새로운 변혁의 기운을 불러일으켜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행동강령 또한 마련됐다. 7대종단 평신도 대표들은 종교인, 직업인, 사회인, 국민, 인류로서 바람직하게 살아가겠다는 실천지침을 번갈아가며 읽었다. 이에 따르면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람답게' '주어진 일은 정직과 성실로 수행하는 직업인답게' '공공선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인답게'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는 지구인답게' 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승 스님은 "'답게 살자'는 사회 갈등을 치유한다는 점에서 시대와 부합하는 현실적 실천이자 평신도들이 주체가 된 의미 깊은 운동"이라고 평하며 "역사적으로 종교인들이 사회가 어려울 때 빛과 희망을 준 것처럼 이 운동이 확산돼 사회에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권길중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준비위원장 역시 "어둡다고 느끼면 먼저 촛불을 켜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의 과반수가 종교인이다. 우리가 촛불이 돼 지속적 쇄신을 이뤄낸다면 세상은 곧 밝아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역시 "사회 속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인들이 나서준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며 "스스로를 정화하고 건강하게 만들려는 범종교적 노력이 사회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KCRP는 4월 초 종단 평신도 대표 1백여명이 모여 운동 전개 방향을 고민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후 4월 30일 '답게살기 운동본부'를 정식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후 운동 실천대회를 열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한편 이날 KCRP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광복 70주년 남북 종교인 공동기도회 사업, 제10차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총회 국내 유치, KCRP 30주년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선학원과의 갈등 대화 통해 풀겠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 26일 밝혀

추진위 100명 규모 구성
오는 3월 중순 공식 발족

오는 3월 중순 출범하는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법등 스님〈사진〉이 선학원과의 갈등을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종적인 목표는 법인법 제정 이전 2002년 합의 수준으로 관계를 복원하는 것으로 삼았다.

법등 스님은 2월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단 스님들과 선학원 구성원 스님들이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 길이 있을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하면 해법이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법인법 이전 2002년 합의 수준으로 관계를 복원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대화의 타협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상호간 팽배해 있는 불신을 지적했다. 법등 스님은 "종단과 선학원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자세가 부족했다"면서 "서로를 대화 파트너로서 존중한다면 서로의 입장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관리법에 대해 "법인에 대한 종단 차원의 등록은 필요하다"면서도 "현행 법 역시 '관리'보다는 '등록'과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런 측면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선학원정상화를위한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되는 종단적 조직이다. 종정 진제 스님을 증명으로 원로의원과 명예원로의원 스님들이 고문을 맡게 되며 지도위원, 집행위원, 추진위원 등 100여 명 가량으로 이뤄진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소·폭로… '오리무중' 해인총림 방장 선출

대원·원각 스님 추천위 상호 攻防… 선원수좌회 중재 불발

합의 추대 주장하면서
네거티브 난무 '눈살'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선출이 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여기에 각 후보로 추대된 대원, 원각 스님 양측 추천위원회 간 제소와 폭로 등 상호 공방까지 이어져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고 있다.

벽산당 원각 스님 해인총림 방장 추천위원회는 2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각 스님(원당암 회주)을 방장으로 추대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장 후보인 대원 스님과 원택, 선각 스님에 대한 의혹과 일련의 사전 선거 운동까지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원각 스님 추천위는 "대원 스님은 20년 넘게 사설사암 '학림사'를 최근까지 종단에 등록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등록했다. 2013년 원로의원 선출 당시에는 학림사가 '대각회' 소속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원 스님 추대위원회 측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원각 스님 추천위에 따르면 대원 스님 측이 前 방장 법전 스님 49재 기간부터 현재까지 사중 인력을 동원해 말사 주지와 재적승, 비구니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지지 성명을 받아내고 있으며, 관련 지침까지 시달한 것으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각 스님 추천위 측은 대원 스님 추천위 공동위원장 세민 스님(원로의원), 종진 스님(율주), 원융 스님(수좌)과 선각 스님(선원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이유로 중앙선관위와 호법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제9대 해인총림 방장후보 학산대원 대종사 추천위원회는 2월 2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원각 스님 추천위가 제기한 문제를 해명 · 반박했다.

또한 원각 스님 추천위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원 스님 추천위는 "수행은 뒷전으로 하고 평생 종단 정치에만 매달려온 스님들의 기자회견다웠다"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조계종 원로 대종사의 위의(威儀)를 제멋대로 훼손하는 추태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응할 가치도 없는 원각 스님 측의 흑색선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조계종과 해인총림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스님들의 참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 추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원, 원각 스님 진영 모두 각자가 후보로 추대한 스님을 합의 추대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합의 추대의 분수령이 될 전국선원수좌회의 25일 회동이 불발로 그쳤기 때문이다.

해인총림의 최고 어른인 방장을 모시는 과정이 혼탁해지는 것에 대한 불교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총림의 최고 권위이자 위엄인 방장마저도 완장이 되는 세상이 됐다"면서 "각 후보를 지지하는 사중 스님들의 폭로와 대립의 구도를 해인사는 과연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신성민 기자

사 고

감사편지 공모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통의 감사편지는 자기 힐링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곧 불자다운 삶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과 함께 201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부처님, 가족, 스승, 친지, 이웃에게 쓰는 '감사편지'를 공모합니다. '감사의 합장'을 생활화 하기 위한 이 행사에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공모 일시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15~20매 (A4 용지 2매 글자크기 10포인트)
접수·문의 우편(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메일(linus@hyunbul.com) 접수 전화 (02)2004-8200
수상 내역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입선 3명으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부상이 수여됩니다.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후원 | 불교여성개발원 · 동산반야회 · 공림공양회 · 여여원

벽산당 원각큰스님을 해인사 방장으로 추천하면서

해인총림 방장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해인사 산중총회가 3월 7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벽산당 원각큰스님을 차기 해인사 방장으로 모시고자 해인사 산중대중의 염원을 모은 '벽산당 원각큰스님 해인사 방장 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대중 앞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1. 원각 큰스님을 해인총림 방장으로 모시고자 하는 이유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법보종찰이며, 모범적인 총림운영과 교육도량으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었습니다. 또한 해인사는 그동안 해인사 산중의 각 문중과 재적승들이 개방적이고 원융적인 산중운영을 해왔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많은 스님들이 해인사를 의지해 교학을 연찬하고 참선정진 해왔으며, 대다수 스님들이 해인사를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해인사는 '해진사(해가 진 사찰)'라는 조롱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청백가풍의 오랜 전통은 사라지고 세속적 풍조가 만연하는 사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팽배합니다. 뜻있는 수좌들과 학인들은 더 이상 해인사를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됩니다. 해인사가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방장스님 측근에 의한 전횡독재와 원융화합체제 붕괴, '독살이' 운영, 대규모 납골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 추진, 선원 입방자를 선별하여 받는 점(일명 '조리질 방부'), 해인사 선원장이 납골사찰들(고불암, 도림사, 미타원)의 주지를 겸하면서 수익사업에 전념하는 점 해인사 선원장이 결제기간에도 수시로 외부출입을 자유로이 하면서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최고급 외제차(BMW 7시리즈, 아우디 A8,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를 운행하면서 해인사 세속화에 앞장서는 점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총림의 방장스님을 모셔야 하는 해인사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훌륭한 방장스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해인사는 특정인의 '독살이'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세속적 사찰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 이상에서 언급한 해인사를 망치고 있는 병폐를 뿌리 뽑는데 앞장 설 분은 누구입니까?
– 해인사의 청백가풍 회복과 선풍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대중을 이끌어갈 분은 누구입니까?
– 해인사의 많은 문중과 재적승들을 원융으로 화합시켜 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 법보종찰의 명성에 걸맞는 불교학의 중추적 역량을 조성하고 승가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벽산당 원각큰스님 해인총림 방장 추천위원회'와 해인사 재적승들은 이러한 해인사의 **시대적 책임을 다하실 분은 바로 원각큰스님이라 생각합니다.**

원각큰스님은 근대 한국 선불교의 큰 봉우리인 용성, 인곡, 혜암 전 조계종 종정스님의 법맥을 이어온 제자로서, 1967년 해인총림 동안거를 시작으로 평생을 수선납자로 살아오신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출가 이후 50년 가까이 가야산과 해인사를 떠나지 않고 정진해 오신 분으로서 누구보다 해인사의 수행가풍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해인총림 유나 직책을 십 수년째 수행하면서 총림 화합운영에 기여했으며, 현재 조계종전국선원수좌회의 공동대표로서 선풍진작에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성품이 강직하면서도 온화하여 조주가풍을 펼치시는 분으로 총림대중과 해인사 재적승들을 화합으로 이끌어 해인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2. 대원스님께서 해인사 방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대원큰스님께서 훌륭한 선 지도자임은 널리 알려진 분이지만, 아쉽게도 1970년대 초 해인사선원에서 몇 안거를 사신 이후에는 한번도 해인사에서 사시거나 소임으로 기여하신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님께서는 해인사의 가풍을 잘 알지 못하고 계시며, 많은 문중과 재적승을 화합으로 이끄는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해인사는 그동안의 적폐를 뿌리 뽑고, 세속화 된 '독살이' 체제를 끝내고, 정법에 입각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원스님을 추천하고 옹립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동안 해인사를 망쳐왔던 당사자가 아닙니까?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 또다시 대원스님을 추천하고 운동하는데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30년 가까이 성철스님께서 해인사 방장으로 계셨고 조계종 종정을 겸하시면서 많은 덕화를 펼친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신도들의 시주와 헌납이 답지하여 전국 곳곳에 사찰을 십 수개씩 건립했는데, 이러한 사찰들을 종단이나 해인사로 귀속시키지 않고 별도의 백련재단법인을 만들어 거기에 등록받아 탈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 이사장스님이 대원스님을 해인총림 방장으로 모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스님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해인사 산중총회에 주도적으로 개입합니까?

이처럼 평소 해인사를 망치고 있다고 지탄 받는 스님이나, 종단과 무관한 별도의 재단법인 사찰을 관리운영하는 스님이 대원스님을 방장으로 옹립하는데 앞장서기 때문에 우리 해인사 재적승들은 대원스님을 해인사 방장으로 모시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행히도 대원스님께서는 20년 넘게 사설사암 '학림사'(대전시 소재)를 최근까지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종헌종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49재가 끝난 당일(2월 9일) 저녁에 이 사실을 발표하여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추진하다 대중들에게 사전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산중총회 구성원의 뜻과 권한을 몇 사람들이 사전에 찬탈하고 왜곡하는 일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9재 기간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집요하게 말사 주지스님들과 재적승들, 그리고 비구니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대원스님추천위원 수락이라는 형식을 빌어 사실상 지지서명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일반여론조사도 아니고 후보선출 권한 당사자인 산중총회 구성원들에게 지지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출하게 하여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전 선거운동으로서 해인사 산중총회를 과열된 선거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우리는 원각큰스님을 해인사 산중총회에서 여법하게 합의추천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누가 해인사 산중총회를 방장스님 입적 때부터 현재까지 선거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원각큰스님 해인사방장추천위' 스님들은 법전 방장스님이 입적하신 직후부터 후임방장 추천문제는 49재가 끝난 이후에 논의를 시작하자고 일관되게 요청했고, 산중의 각 문중과 중진들의 논의와 조정을 거쳐 산중총회를 통해 합의추대하자고 49재 기간 내내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과 주장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방장스님의 다비식이 끝나고 사리를 수습하던 때부터 현재 대원스님을 방장으로 옹립하고자하는 추천위원회 대표 몇 명의 스님들과 해인사 선원장스님이 비밀리에 대원스님 방장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49재 기간 중에 해인사 선원장이 주도하여 비밀리에 방장후보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순서를 정하고, 임기까지 결정하는 서명문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9재가 끝난 당일(2월 9일) 저녁에 이 사실을 발표하여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추진하다 대중들에게 사전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산중총회 구성원의 뜻과 권한을 몇 사람들이 사전에 찬탈하고 왜곡하는 일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9재 기간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집요하게 말사 주지스님들과 재적승들, 그리고 비구니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대원스님추천위원 수락이라는 형식을 빌어 사실상 지지서명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일반여론조사도 아니고 후보선출 권한 당사자인 산중총회 구성원들에게 지지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출하게 하여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전 선거운동으로서 해인사 산중총회를 과열된 선거판으로 몰아가는 불법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종회에 추천할 총림방장 후보자의 선출은 산중의 공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고유의 방식으로 한다"

이것이 방장후보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법 제 8조의 내용입니다. 즉, 방장후보선출은 산중총회를 열어 공의를 모아 후보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어디에도 후보등록이나 선거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산중총회 구성원이 합의 추대한다는 것이지, 몇 사람들이 사전에 담합하여 후보를 결정하면 그에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존경받지 못하는 분들이 앞장서면 더욱이 대중들은 외면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인사 산중총회를 선거판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해인사 선원장스님과 '대원스님 방장추천위' 스님들입니다. 해인사 산중총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산중총회를 과열된 선거판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반드시 여법한 산중총회를 통해 심판할 것입니다. (과거 총림의 방장을 추대하는 절차가 종헌 종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산중의 중진스님 몇 분이 종단의 중재로 방장을 추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2000년대 들어 관련 종법이 정비됨으로서 전국의 모든 총림이 해당교구의 산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중앙종회에 방장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오늘의 시대는 한국불교에게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에 필요한 가치와 내용을 해인사가 마련하고 창출해야 한다는 비상한 책무감을 가져야 할 때이며, 해인사가 이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고 노력하는데 해인사 재적승들이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원각스님 방장추천위원회' 스님들과 해인사 재적승들은 이러한 비상한 각오와 원력으로 원각큰스님을 해인사 방장스님으로 모셔서 해인사를 정상화시키고 한국불교가 크게 중흥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15년 2월 24일

벽산당 원각큰스님 해인사 방장 추천위원회 대표 : 원학. 성법. 향적. 여연